

도시적 맥락에서 본 전통한옥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of Spatial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Housing in Urban Context

이해경*

Lee, Hae-Kyung

강경호**

Kang, Gyoung-Ho

Abstract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changes of spatial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housing in urban context with the following preconditions. Firstly, Chosun Hanyang's urban housing should be classified as its own type. Secondly, Chosun's traditional housing accomplishes a complete urban housing type in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the stream of time.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s. First is to find out the process of changes of urban housing in urban context from the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to 1960's. Second is to find out the origin of spatial structure of urban house which is being kept throughout the above changes. Third is to find ou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urban house and the fundamental differences with folk houses in province.

Keywords : Traditional Urban Housing, Gyeonggi Folk Housing, Urban Context, Spatial Origin

주 요 어 : 도시한옥, 경기형 민가, 도시맥락, 공간적 원형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전통한옥의 공간구성 변화를 도시적 맥락 속에서 파악한 것이다. 즉 조선시대 이후 도시에 존재했던 한옥을 중심으로 하여, 어떠한 변화과정을 통해 점차 도시조직 속에서 완결된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지금까지 한옥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조선시대 이후 각 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전통한옥에 관한 연구로서, 민가에서 반가에 이르기까지 개별 주택이 가지는 공간 구성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¹⁾ 둘째는 1930~60년대까지 계획적 주거지에 대량으로 공급된 도시형 한옥²⁾에 관한 연구로서, 여기서는 개별주택의 특성은 물론 주거지의 가로체계와 주택의 집합방식 등 도시적 차원에서의 한옥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³⁾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일제시대 이전의 도시한옥⁴⁾, 특히 조선시대의 그것들은 도시주거로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1930년대 이후 완결된 형태를 가지게 된 도시한옥의 원형은 이전 한양에 있던

도시한옥의 공간적 구성에서가 아닌 '경기형 민가'의 형태적 구성에서 찾고 있다. 이렇다보니 조선시대 한양의 도시한옥과 일제시대 이후 북촌의 도시한옥은 도시형 주택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그 흐름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근대의 도시한옥은 마치 새롭게 탄생한 도시주거의 독자적 유형으로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조선시대 한양의 도시한옥은 지방형 민가와는 구별된 도시주거의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시주택이란, 필지와 가로체계 등 도시조직이라는 한정된 조건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공간적 특성은 지방의 민가들과 분

1) 반가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주남철(1965~1966), 한국주택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 연구(I)~(III), 대한건축학회지, 19~21호를 들 수 있으며, 민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성기(1991), 한국 중부형 민가에 관한 연구(I),(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3호·6호 등이 있다.

2) 도시형 한옥이란 1930년을 전후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도심부 및 도심주변부에 집단적으로 공급된 중소규모의 한옥군으로, 송인호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명명되었다.

3) 당시의 도시한옥에 관한 연구로는 유영희(1994), 도시한옥 주거 양식의 변화과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등과 같이 개항기 이후의 도시주택의 변화를 평면·구조·의장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것과 송인호(1990), 도시형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과 같이 한옥밀집주거지에서 주거유형을 그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로 및 필지와 함께 분석한 연구 등이 있으며, 이후 여러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다.

4) 도시한옥은 조선시대 이후 도시조직과 관계하면서 형성된, 도시 주거로서의 모든 한옥을 의미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한옥은 모두 이 용어로 통일하였다.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정회원,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본 논문은 2005년도 학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 육성사업 중 인문 사회분야 심화연구(과제번호: KRF-2005-079-BS0105)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명 차이점을 가진다는 전제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한양의 도시한옥이 지방형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도시적 맥락 속에서 찾으려 했다.

둘째, 조선시대 한양에 자리했던 도시한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조건을 수용하면서 일제시대에 이르러 도시주거로서 완결된 한옥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별건축의 연구에 머물렀던 조선시대의 한옥을 도시주거로서의 차원으로 확장하고 이것이 일제시기에 형성된 도시한옥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⁵⁾

셋째, 조선시대 이후 한양에 지어진 중·소규모의 도시한옥들을 보면 전통적인 한옥 건물이 좁고 한정된 평지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때 전통한옥이 가진 공간적인 원형은 유지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건물을 앓히기 위해 구성적인 면에서 변화를 가졌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한양에 존재했던 도시한옥이 점점 근대 도시라는 조건에 맞추어가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공간적 원형’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도시에 자리한 한옥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시작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이후 서울 지역에 존재한 도시한옥의 변화과정을 도시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원형적 공간구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도시한옥이 가진 고유한 특성은 무엇이며, 경기형 민가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전통한옥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도시한옥의 원류에 대한 획일적 전제에 관하여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도시에 존재한 전통한옥의 특성을 도시적 차원까지 확대하여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이 주변지역 민가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근본적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한옥은 크게 조선후기 한양⁶⁾의 도시한옥과 일제시대 서울 북촌⁷⁾의 도시한옥으로 나

5) 일제시기의 도시한옥은 이전 조선후기의 도시한옥과 유사하면서도 분명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특성은 1) 주거지구조와 주거유형이 동시에 계획되고 건설된 주거유형이라는 점 2) 근대적인 주거지구조와 전통적인 주거유형이 만났다는 점 3) 집단적으로 건설되어 동일한 주거유형의 복제·변형에 의해서 완성된 주거유형이라는 점 등이다.

6) 한양은 조선의 국도(國都)로서 500년간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당시의 기본적인 정치체제나 사회제도 및 문화적 규범 등을 반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주택은 우리의 삶과 문화가 가장 잘 표현된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된다. 따라서 시간적 범위는 조선시대 말기(1800년대 이후)부터 시작하여 도시한옥이 대량으로 공급된 시기(1920년대~1960년대)까지가 된다. 조선시대 중 특히 조선후기의 주택은 한국의 전통적 생활과 문화가 가장 잘 반영되고 완성된 것으로서, 현재 전통한옥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가 이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 고찰·분석되었다. 첫째, 조선시대 후기의 일반적인 양반주택과 도시한옥의 공간구성을 고찰하는 것으로, 문헌연구와 함께 몇 가지의 도면자료⁸⁾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조선시대의 한옥에 대해서는 반가의 공간구성을 중심으로 보되 반가의 구성적 특성을 가진 중규모 이상의 중인주택 또한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⁹⁾ 또한, 조선시대 이후 도시 속에 자리한 한옥의 공간 구성적 특성을 보기 위해 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와 한양의 주거지 및 주택의 평면을 참고로 하였다.¹⁰⁾ 둘째, 지금까지 연구된 문헌자료들을 통해 조선시대 이후의 도시한옥은 주거지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공간구조를 형성하게 되는지 고찰하였다. 셋째, 경기형 민가와 한양 도시한옥의 공간구조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들의 유사한 형태 속에 존재하는 구성적 차이는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이것은 문헌연구와 함께 도면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II. 조선시대 도시한옥의 일반적 공간구조

1. 전통한옥의 일반적 공간구조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의 양반주택은 채(棟)와 간(房)의 분화에 그 특징이 있다. 주택 전체가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의 채로 분화되고, 다시 이 채 속에서 안방, 사랑방, 마루, 건넌방 등의 간으로 분화된다. 이는 조선시대의 유교정책과 신분제도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상류주택은 내외의 구별, 장유의 위계, 학문과 접객 등 사대부로서 성리학적 규범들을 준수하기 위해 공간이 구별되고, 이에 따라 건물과 공간이 분화된 것이다. 따라서 주택은 남성과 여성의 공간(内外區別) 혹은 주인과 하인의 공간(上下區別)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사

7) 조선사회는 계급제도가 엄중하여 각 계급끼리 모여 살았으므로, 이들의 주거지는 다른 계층과 분리되어 풍수상 길지(吉地)에 해당하는 서울의 북촌과 남촌 등지에 모여 살았다. 이후 일제시기에 북촌에는 규격화된 도시한옥이 대량적으로 공급되었다.

8) 18세기 조선시대의 한양성 내에 가옥이 표현된 가옥도형(家屋圖形)과 1908년에 제작된 가옥도본(家屋圖本)을 참고하였다. 가옥도형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마이크로 필름으로 소장되어 있는 자료이며, 가옥도본은 전보림의 연구에서 한옥을 도시적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된 바 있다.

9) 조선사회를 움직여나간 지배적인 계급은 양반으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 바로 이들의 주택이라 할 수 있다. 중인은 양반 다음의 계급으로서 이들의 교양과 문화의 정도는 양반에 못지 않았으며, 주택 또한 양반의 것과 흡사한 구성을 취한다.

10) <http://digitalhanyang.culturecontet.com>; 한국문화진흥원에서는 현재 조선시대의 한양의 주거지 및 주택의 모습을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유교적 생활문화와 그에 따르는 주거형식이 정착되어 갔으며, 그들이 사회의 지배계층으로 성장하는 조선중기 이후 이러한 주거양식은 일반민중에게 까지 확산되었다.

<그림 1>은 계동에 위치한 민재무관 가옥으로 그 건립 연대는 1920년대이지만 조선시대 도성에 있던 중소규모 한옥의 전형적인 공간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채의 구성을 보면 채와 마당이 하나의 공간단위가 되며, 각 채는 그에 연관된 마당에 대해 개방적인 구성을 가진다. 특히 안채와 사랑채의 경우, 건물은 전·후면의 외부공간을 향해 열려있음을 볼 수 있다. 행랑채는 주변부에, 안채는 주택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행랑채가 외부공간에 면하여 폐쇄적인 구성을 함으로써 안채의 생활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한양에 위치한 주택의 안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격임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¹¹⁾ 결과적으로 조선후기 한양에 위치한 전통주택의 전형적인 공간구성은, 마당과 채로서 하나의 완결된 공간을 구성하는 단위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택 전체를 형성하고, 그 주변은 담 혹은 건물이 일곽을 형성하면서 외부에 대해서 폐쇄적인 구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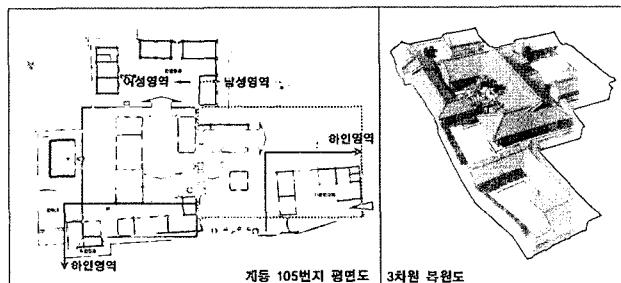


그림 1. 조선시대 중소규모 한옥의 전형적 공간구조
<출처: <http://digitalhanyang.culturecontent.com>의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 도시조직 속 도시한옥의 공간구성

14세기 말 조선의 새 왕도 한양은 자연지형과 풍수사상 그리고 중국의 도성원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도시로 만들어졌다.¹²⁾ 도시의 형성과정을 보면 중국의 도시계획이념에 따라 중요한 시설들을 배치하고¹³⁾ 그들을 연결하는 주요가로를 설정¹⁴⁾하였으며, 나머지 주거지에 놓이는 건축물들은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자

11) 한국 주택의 안채 평면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일자형(부엌-안방-대청-건넌방)이며, 하나는 안방 밑에 부엌을 꺾어 배열하는 격임형이다. 이에 관하여 정인국 교수는 일자형을 민가형, 격임형을 경기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일 교수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격임형은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12) 한양은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한 이상국기를 건설하기 위하여 격자형 가로망을 가진 중국의 도성제(都城制)에 의거하여 기본 계획 수립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지나 넓은 평야에 입지하는 중국 도성의 형성논리를 산지나 구릉지가 많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수월치 않았을 것이다.

리를 잡아나갔다. 따라서 주거지의 구조는 불규칙한 가로와 부정형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2>. 특히 삼청동 35번지 이남과 계동 이남에 형성된 주거지는 조선 후기의 공간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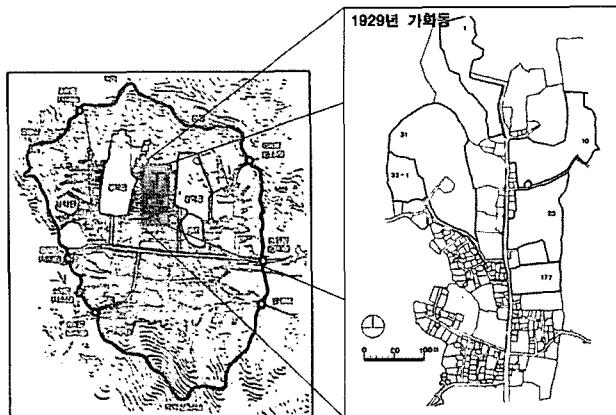


그림 2. 조선시대 한양의 도시구조와 주거지구조
<출처: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건축사, p173 송인호, 도시형한옥의 유형연구, p39의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이곳은 북악(北岳)과 응봉(應峯)을 잇는 능선을 하나의 축으로 하여 남쪽으로 전개되는 경사지에 몇 가닥 물길을 중심으로 동네가 좁고 길게 형성되었다. 이 때 지형상 조건이 양호한 길 양쪽의 구릉지에는 양반이나 세력가들이 거주한 중대형 필지가 놓여있으며, 물길을 따라서 길 양편으로는 계층이 낮은 사람들에 의한 소형필지가 분포했음을 1912년 지적도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¹⁵⁾ 이것은 전통마을에서 볼 수 있는 ‘전후개념(前後概念)’과도 연관된 것으로, 위계가 높은 주택일수록 마을 도로의 맨 끝부분, 곧 주거지의 최후 면에 자리함으로써 시작적, 심리적 또는 구조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자리를 잡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은 조선시대 이후부터 일제시기 전까지 서울의 도심부에 자리했던 중·대형 도시한옥의 배치 및 그 공간구성을 정리한 것으로¹⁶⁾, 주거지가 계획적으로 분할되기 이전 유기적인 주거지의 조직 속에 지어진 당시의 중·대형 도시한옥의 구성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전

13) 유교적 전통에서 도읍을 건설할 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왕이 거주하는 궁궐과 종묘사직과 같은 제사공간, 그리고 주민들의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공간이다. 이들은 주례(周禮)의 고공기(考工記)에 의거하여, 궁궐의 외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배치하고, 육조(六曹)를 비롯한 제반 관청건물을 경복궁 앞에 배치하였다.

14) 주요 계획가로로는 경복궁에서 종로에 이르는 남북방향의 육조거리와 동서방향의 종로거리, 그리고 종루로부터 남대문으로 휘어지는 도로 등이다. 특히 생필품을 공급하는 상점들이 밀집한 종로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된다.

15) 조준범, 최찬환, 필지문화를 통해 본 서울 북촌 도시조직의 변화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3.2

16) 1)~3)까지의 주택은 모두 180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건평은 95~273평에 이른다. 4)~6)까지의 주택은 모두 1908년 제작된 가옥 도본 상에 있는 것으로 59~108평에 이른다.

통한옥은 가로의 위계와 필지의 형상 등에 따라 공간구성의 변형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공통점을 가짐을 볼 수 있다.



그림 3. 조선시대 도시한옥의 배치 및 공간구성
<출처: 이영석, 송인호 학회논문 및 전보림 학위논문의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첫째, 가로를 따라 문간채를 포함한 행랑채와 뒷채 등이 연결되어 자리 잡음으로써 주거건물이 가로에 연접하는 구성을 취하며, 따라서 전체 주택은 폐쇄적인 성격을 갖는다. 대지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랑채가 행랑채와 함께 가로에 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후 도시한옥에서 행랑채와 사랑채가 문간채로 축소되기 전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가로에 대해 폐쇄적인 각각의 채들은 마당을 향해서는 열린 구성을 가짐으로써 전통한옥의 공간구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당시 도시조직의 특성상 주택으로의 진입은

남북방향의 가로를 중심으로 동서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선상 가장 안쪽에 안채가 자리잡고 있다. 이것 또한 조건에 상관없이 유지되는 전통한옥의 구성방식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안채 및 사랑채와 같은 주요 공간은 전면에 마당을 두고 남향을 할 수 있도록 북쪽 대지경계선에 인접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남쪽에 건물이 놓을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에서 떨어져 작은 마당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¹⁷⁾ 다섯째, 필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주택의 배치는 자유스러워지며, 하나의 채는 두개의 마당을 향해 열려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필지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주택형태는 정형화되고, 대지경계선에 면하여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각 채가 하나의 마당을 향해 열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조선시대 한양에 자리했던 도시한옥은 이후 근대 도시한옥의 균원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가로에 대하여 폐쇄적인 구성을 하는 것은 도시한옥의 공통적 특징으로서, 경기감영도와 가옥도형을 통해서도 그러한 점을 쉽게 볼 수 있다. 즉 <그림 4>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조선시대 도성 주변의 대규모 가옥들을 보면, 주로 가운데의 중심건물을 두고 행랑으로 보이는 일자형 건물들이 도로를 따라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¹⁸⁾ 이렇게 가로에 대해서 폐쇄적인 주택들은 주로 남쪽에 커다란 외부공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주택의 남향선호 사상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가옥도형과 경기감영도를 통해 본 조선시대 도시한옥의 일반적인 모습

III. 일제시기 도시한옥의 형성

1. 완결된 도시한옥의 선형적 유형

일제시기 주택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1920년 후반부터 도시의 주거와 주거지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¹⁹⁾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던 이전의 중·대형의 한옥필지

17) 전보림, 한옥의 도시주거적 배치특성과 그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41

18) 경기감영도는 조선시대 경기감영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그린 18세기 후기의 그림으로서, 조선후기의 관아건축은 물론 도시의 구조와 그곳에 위치한 한옥의 공간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는, 1930~60년대까지 30평에서 35평의 규모를 가진 정방형의 필지로 일정하게 분할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통 한옥은 좁은 필지 속에서 점차 최대의 밀도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정착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도시주택의 유형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²⁰⁾ 그런데, 이렇게 도시한옥이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정착되기 이전에 조밀한 도시조직 속에는 몇몇의 선형적 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존재는 조선의 도시한옥과 일제의 도시한옥을 연결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이들은 고밀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의 주거이지만, 좁은 필지에 적응하는 방법들은 일제 도시한옥의 진화과정을 설명해줄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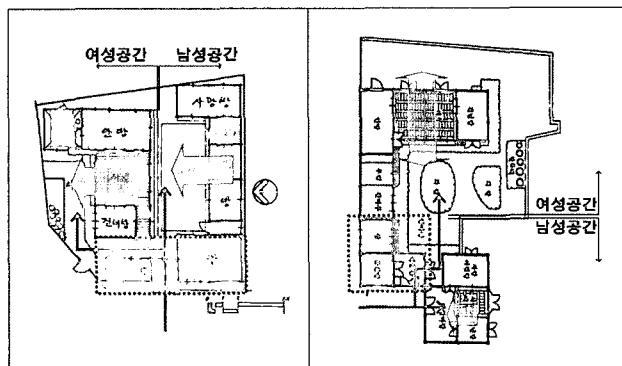


그림 5. 채의 축소가 일어나는 도시한옥
<출처: 1) 좌: 유영희 논문, 기회동 1930년대 초 추정
2) 우: 송인호 논문, 삼청동 1929년 이전 추정>

첫 번째 예는 <그림 5>에서처럼, 전체 공간구성은 여전히 마당과 채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채의 축소가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나는 도시한옥이다. 즉, 이전의 행랑채는 문간채로 간소화되고, 행랑채 대신 주택의 일부가 필지경계선에 면함으로써 마치 담처럼 도시의 길에 직접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²¹⁾ 하지만, 전통적 생활방식의 공간구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안채는 여성의 전용공간으로서 자녀양육 및 가사작업이 이루어지고, 사랑채는 남성의 전용공간으로서 주로 손님접대가 이루어진다. 이전의 도시한옥과 마찬가지로 북측 대지경계선에 인접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남쪽을 향해 두개의 마당을 형성하고 있

19) 1912년와 현재의 지적원도를 겹쳐보면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중반에 대형필지가 집중적으로 분할되면서 북촌에 한옥들이 집단적으로 지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 당시의 도시한옥은 집단적으로 대량생산한다는 특성 때문에 표준화된 평면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200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도시한옥 가운데 ㄱ자형 19%, ㄷ자형과 모자형이 70%로 전형적인 주택의 형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1)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실시된 신분제의 변화에 따라 점차 노비들을 소멸하거나 세도가총과 같은 특수층에 한정되어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노비에 의해 운영되던 가사운영이 가족단위의 운영으로 전환됨으로써 행랑채는 문간채로 축소화되고, 부속채들은 안채와 연관되어 안마당을 중심으로 건립되는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아직까지 남녀공간은 엄격히 구분되어 동선은 물론 화장실도 따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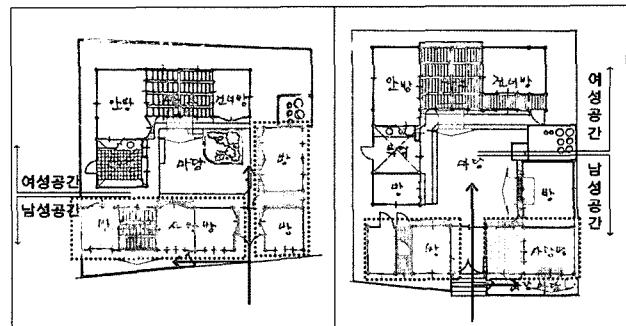


그림 6. 문간채와 사랑채가 결합하는 도시한옥
<출처: 유영희 논문, 기회동 1930-40년대 추정>

두 번째의 예로는 튼모자 한옥을 들 수 있다. 튼모자 한옥은 조선시대의 한양에 이미 존재해왔던 주거유형인데, 이 후 보다 진밀하고 밀집된 공간구조를 형성하면서 변화되고 있다.²²⁾ <그림 6>에서 보듯이, 여전히 남녀에 대하여 독립된 진입과 함께 마당과 채가 분리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공간의 구성적인 면에서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 즉,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제약이 따르게 되고, 사랑채와 사랑마당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주택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성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점차 사랑방의 퇴가 안마당 쪽에도 형성됨으로써 사랑채는 사랑마당과 안마당을 향하여 동시에 열리는 구성을 가진다. 결국 ㄱ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사랑채 + 문간채는 안마당을 둘러싸는 공간구성을 하게 되었으며, 대문을 중심으로 한 문간채와 사랑채는 가로에 면하여 폐쇄적인 구성을 유지한다.

2. 도시한옥의 완결적 유형

1930년대 이후 전통한옥은 점차 협소한 도시조직에 맞추어 필지와 일치하는 완결된 형태로 변화하며, 이로서 ㄷ자형의 보편적 유형이 만들어진다.²³⁾ 이는 당시 도시한옥이 주거지 구조와의 관계로부터 완성된 주거유형이므로 이미 그 형성과정에서부터 필지의 한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랑채는 사라지고 사랑방만이 안채의 건넌방 옆에 위치하면서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일체형 한옥이 형성된다. 이제 채의 개념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사랑채 기능의 감소

22) 튼모자한옥이 앉혀지기 위해서는 바깥채의 앞쪽에 별도의 바깥마당을 구성하기 위해 적어도 60평 남짓한 규모가 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북촌에는 기회동 11주거지의 기회16, 기회22, 기회23과 삼청동 35주거지, 기회동 33주거지의 일부 등 필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에서만 이 유형의 한옥이 발견된다.

23) ㄷ자형 도시한옥은 완전 ㄷ자형과 불완전 ㄷ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 ㄷ자형은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의 문간채가 붙어있는 것으로 지붕도 이어져 있다. 반면 불완전 ㄷ자형은 안채와 문간채가 분리되어 있으며 지붕도 분화된다.

와 대지의 협소라는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수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안마당은 전체 주택의 중심적 공간이 되며, 사랑방은 단지 정원으로서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이후 사랑방은 완전히 사라지고, 문간채가 여러 개의 방으로 분화하면서 자녀의 방이나 셋방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자녀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주택의 일부를 세를 줌으로써 경제적인 이윤을 얻고자 하는 사회적인 흐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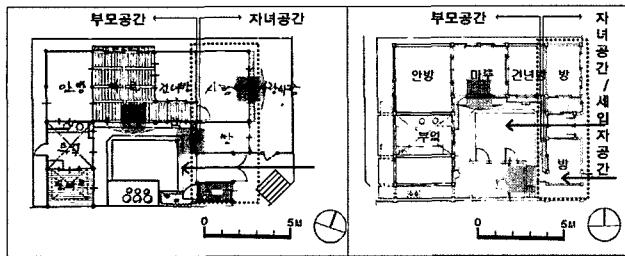


그림 7. 채의 소멸과 완결된 형태의 도시한옥
<출처: 1) 좌: 유영희 논문, 가회동 1930년대 말 추정
2) 우: 송인호, 용두동 1960년대 초 추정>

이렇게 일제시기 도시한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ㄷ자형의 주택에서 안채, 사랑채, 별채, 행랑채, 사당 등의 채들로 구성되던 관습적인 한옥은 이제 최종적으로 안채와 바깥채²⁵⁾의 결합으로 간소화되었다. 즉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문간채가 완전히 디귿자로 일체화된 것이다. 따라서 전통한옥에서 보이던 내외의 분리는 사라지고, 오히려 부모와 자녀 간의 분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바깥채는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기능으로 변화하면서 또 다른 근대도시주거의 특성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도시한옥은 길에 대하여서는 폐쇄적이면서 안마당을 향해서만 열리는 집중적이고 완결된 한옥을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IV. 도시한옥 공간구조의 원형

1. 도시한옥의 원형, ‘웃방꺽음’

전통한옥이 도시주거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채와 부속채들의 고유한 형식을 어떻게 좁은 필지에 효율적으로 집합시키느냐’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채와 채의 결합에 의해 구성된 전통적 한옥형식은 도시조직과 사회질서의 새로운 조건에 맞게 ‘채’를 축소하면서 새로운 공간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원형적 구성방식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채의 공간구조이다. 안채는 지역주거문화를 특징짓는 지표로서 지

24) 유영희, 도시한옥 주거양식의 변화과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 87

25) 바깥채는 안채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랑채, 행랑채, 문간채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역 문화권마다 고유한 안채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쉽게 변할 수 없는 관습적이고 고정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경기지역에 분포한 모든 한옥의 안채는 ‘웃방(안방)-대청-건넌방’의 3칸 기본구성에 웃방 아래에 부엌을 둔 곱은자 평면을 가지고 있다. 이를 ‘웃방꺽음’이라고 하며²⁶⁾, 이것은 경기도의 주거문화를 규정하는 안채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 전통적인 집짓기의 교본인 양택론(陽宅論)에 의하면, 경기도에 주로 나타나는 웃방꺽음집은 권위건축에서 나온 것이라 하고 있으며, 민택삼요(民宅三要)에서도 곱은자집을 경기지방의 ‘웃방꺽음집’과 호서지방의 ‘부엌꺽음집’으로 구분하면서, 전자는 양반주택의 구성방식으로, 후자는 민가의 기본구성인 4칸집(부엌-안방-대청-방)에 혀간채가 덧붙여진 민가의 구성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⁷⁾ 그렇다면, ‘웃방꺽음’은 원래 경기지역에 건축된 양반주택 안채의 기본구성이며, 그것이 곧 그 지역의 모든 민가에 적용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다음에 나열한 몇 가지 단서를 통해 ‘웃방꺽음’ 안채는 서민주택이 아닌 양반주택의 공간적 원형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첫째, 좌향의 문제이다. <그림 8>에서 각 지방별로 분류된 안채의 구성을 보면, 중부형 민가의 ‘부엌꺽음’ 안채의 경우 대청은 서향을 바라보고 부엌이 남향을 하고 있다. 반면, 경기형 민가의 ‘웃방꺽음’ 안채는 유독 마루를 남향으로 하고 안방과 부엌은 동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안방보다 마루가 더 중요한 방향을 취하려는 것은 마루가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조선후기 양반주택에서 사당이 축소되고 대신 대청에 조상의 위패를 모셨던 것과 깊은 관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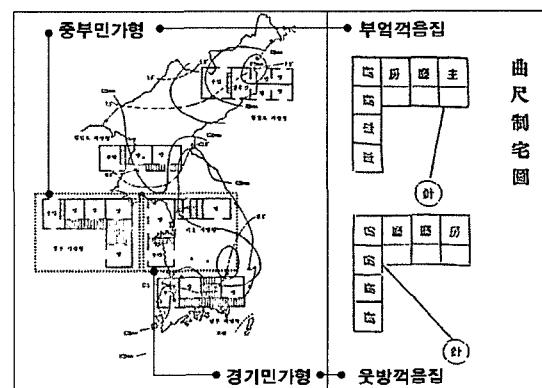


그림 8. 경기형 ‘웃방꺽음집’과 중부형 ‘부엌꺽음집’

26) 한지만의 경기지역의 전통민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곱은자형 안채가 전체 연구대상의 85%에 해당하며, 이중에서 웃방꺽음형 안채가 52.7%에 이른 것으로 보아 경기지역의 민가는 곱은자형 안채 중에서도 마루 원쪽에 부엌과 안방이 배역되는 웃방꺽음형이 대표성을 갖는 안채의 평면 형식이라 할 수 있다.

27) 김홍식, 이해성, 19세기 양택론에 나타난 살림집의 간접이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권6호 통권20호, 1988. 12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안채의 모든 공간이 주된 방 위(남쪽과 동쪽)를 면하게 하는 것과 안채의 좌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능보다는 형식이 강조되는 점은 분명 민가의 공간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둘째, 경기형 민가에서 농사일을 담당하는 남자가 거처하는 바깥채의 구성을 보면, 혀간이나 곳간 등은 안마당을 향해 열려있으나 남성이 기거하는 사랑공간은 안마당에 대해서 폐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즉 사랑채는 단지 안마당을 위요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오히려 외부에 형성된 바깥마당을 향해 개방된 퇴칸을 형성함으로써 독립된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한양 도시한옥의 공간구성과 매우 일치하는 점으로, 실용성을 강요한 서민계층의 민가라기보다는 중·상류 주택의 한 특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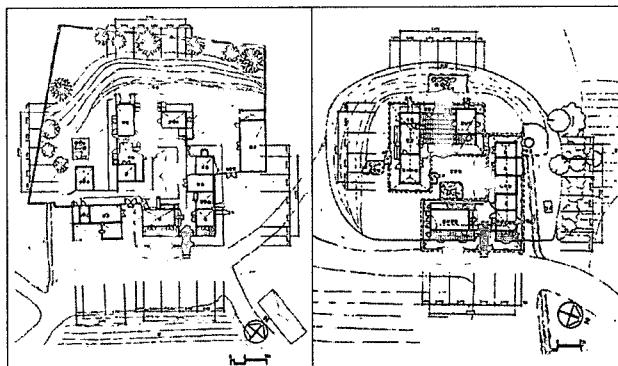


그림 9. 안채영역과 사랑채영역의 분명한 구분
<출처: 한지만, 이상해 학회논문>

셋째, 경기형 민가의 대표적 유형은 튼모자형이다. 이때 대청의 크기와 형식을 통해 튼모자형주택은 분명 상류층 주택을 규범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택론에 의하면 가장 기본적인 민가의 구조는 4칸(부엌-안방-대청-건넌방)이며 실의 확장은 칸을 늘리면서 이루어지는데, 사대부 집의 경우 제일 먼저 대청을 2칸으로 늘리고 이후로 안방-부엌-건넌방의 순으로 확장해 가는 반면, 민가의 경우에는 우선 안방을 늘리게 된다고 했다. 즉 민가에서는 접객공간인 대청보다는 기거공간인 구들이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다.²⁸⁾ 그런데, <그림 10>을 보면, 서울 근방에 분포한 튼모자형 민가의 경우 대청의 규모가 전면 두 칸인 경우가 많고,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벽감이 마루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튼모자형의 경기형 민가 중 상당수가 상류층 주택을 규범으로 한 것이라는 추측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넷째, 웃방꺽임의 격임형 지붕은 민가의 기본형이라 할 수 있는 일자형보다 회첨꼴²⁹⁾ 처리로 인해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또한 경기지역에서 웃방꺽임 민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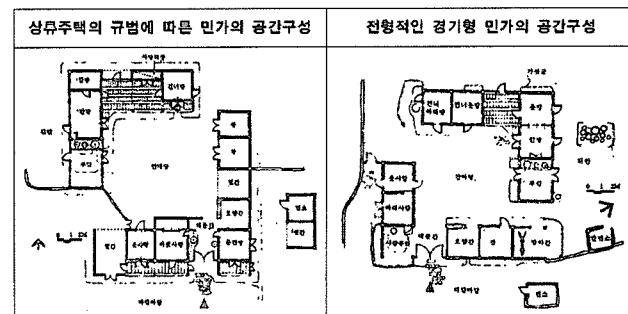


그림 10. 상류주택의 규범에 따른 민가의 공간구성
<출처: 조성기, 한국 중부형 민가에 관한 연구>

발생시기가 일자형보다 비교적 늦어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³⁰⁾ 이것은 일자형 안채와 웃방꺽임형 안채의 기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웃방꺽임 안채는 일반 서민들이 사는 민가와는 별개로 한양과 가까운 경기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양반 및 부호농의 건축주가 한양 상류주거의 구성방식을 따라 건축한 주택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³¹⁾ 결과적으로 한양의 우수한 건축술과 문화가 인근지역의 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한양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 민가는 다른 지역과 달리 상류주택과 유사한 문화적 규범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며,³²⁾ ‘웃방꺽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중·상류주택의 공간적 원형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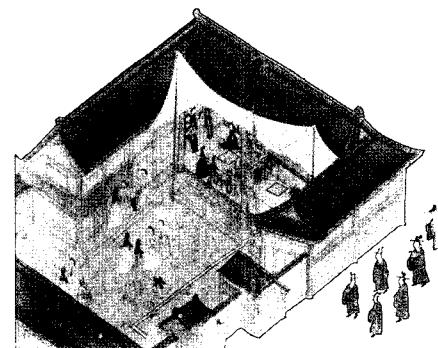


그림 11. 조선시대 서울 상류주택 안채의 전형적인 모습
<출처: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조선생활관, p 54>

2. 도시한옥의 고유한 공간구조 및 배치

민가는 의례적인 양반의 주택과는 달리 실용적인 주택의 성격이 강하고 주거공간들이 지역의 기후에 따라 독

30) 민택삼요에서 경기 호서지방에서는 거의 모두 곱은자로 꺾어서 지었음을 암시하고 있으나(畿湖則舉曲尺制故로 圖趾하야 以備參考이이라), 택보요전에서는 모든 집을 한일자로 도시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곱은자집이 일반화된 시기는 거의 조선 후기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1) 이는 조선후기 양반층의 문화현상과 연관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2) 당시 관에서 일했던 공장(工匠)들이 사장(私匠)으로 전화됨으로써 서울과 인근 지역의 주택양식과 공법이 서로 교류가 빈번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8) 김홍식, 이해성, 앞에 글

29) 처마가 ‘ㄱ자’ 모양으로 꺽이면서 서로 마주쳐 생기는 지붕꼴을 일컫는 말이다.

특한 형태와 배열 방법을 가지는 것이 특징인데, 앞 서 정리한 바와 같이 경기지역의 민가는 양반주택의 공간구성과 유사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³³⁾ 즉 경기지역의 민가는 집의 규모나 건축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일단의 고급 기술을 요하는 곱은자형 건물이 주류를 이루고, 안마당을 중심으로 곱은자형의 안채와 바깥채가 마주 놓이는 공간배치를 이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³⁴⁾

이렇게 튼모자형 혹은 드자형의 민가는 일제의 도시한옥과 형태적인 면에서 거의 유사하여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에서 1) '북촌의 튼모자형 한옥'을 '경기형 튼모자형 민가'가 도시필지에 놓이면서 변형된 한옥 유형으로 결론짓거나, 2) 대량공급된 근대의 도시한옥은 서울 또는 경기지방의 전래 민가형식에 상류주택의 구조·의장적 형태를 접합한 양식이며, 3) 그 구성원리나 내용은 민가의 그것에 바탕을 둔 채 농사작업 등의 기능이 없어지고 좁은 대지 내에서 더욱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이용이 강조됨으로써 완성된 주거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한옥의 원형적 특성은 민가가 아닌 오히려 조선시대 이후 도시에 자리한 도시주택에서 찾아야 하며, 주택형태 및 공간구성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도시한옥과 경기형 민가 사이에는 몇 가지의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도시의 한옥이 가지는 고유한 성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필지와 주택 간의 관계이

유형이 규범적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9>. 특히 <그림 12>에서 보면, 기능적인 이유로 채가 분산된 배치를 가졌던 민가의 공간구성이 점차 도시의 튼모자형 한옥과 같은 모습으로 완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기능은 물론 가로나 주거지 조직과는 무관하게 형성된 형태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³⁵⁾

두 번째는 주택의 구성을 결정짓는 인자의 문제이다. 경기형 민가의 경우 대부분의 진입은 안채의 정면을 향하도록 하며, 특히 대문은 마루의 맞은편에 두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그림 9, 10>. 이것은 양택론의 좌향에 의한 것으로, 따라서 주택의 남쪽은 길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안채 전면까지 길을 별도로 내여 진입을 유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가의 공간구성을 결정짓는 것은 관습의 문제이며, 그 인자로 인해 오히려 주변의 주거지 조직이 조정된다. 하지만, 도시한옥에 있어서의 구성은 안채는 남쪽을 향해 열리도록 하고, 대문을 포함한 바깥채는 도시적 요구조건 즉, 가로에 대응하여 생기게 된다. 즉 문간채의 위치는 주거지의 가로체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며, 이것은 도시한옥의 구성을 결정짓는 것이 관습체계보다는 도시적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³⁶⁾ 따라서 북촌 도시한옥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배치는 웃방꺽임 안채에 남북방향의 도로에 면한 일자형 문간채가 일체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다<그림 13>.³⁷⁾

세 번째는 가로와 주택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민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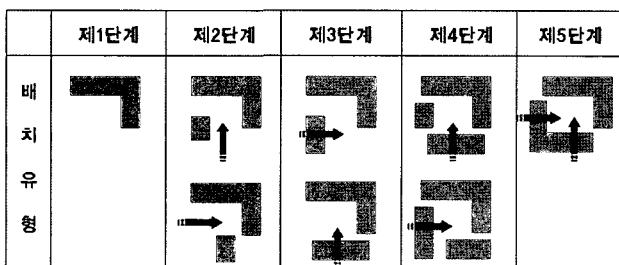


그림 12. 중부형 민가의 배치유형

<출처: 조성기, 한국 중부형 민가에 관한 연구의 자료 재작성>

다. 도시한옥은 가로 및 필지와 관계로부터 출발한 주택이다. 이전까지의 주택은 일단의 대지 속에서 안채와 주변 채들이 지형적 조건에 의해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놓여졌다면, 도시한옥은 도시화와 대량생산이라는 전제 아래 주거지 구조에 맞추어 규모 및 공간구성이 결정짓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도시한옥은 필지의 크기와 형태에 밀접하게 대응하여 점차 그 공간구조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민가는 필지의 형태나 크기와는 무관하게 그

33) 정인국의 연구에 의하면, 정청에서 비롯된 궁전 칠전 구성방식이 그대로 민간주택에 옮겨져 발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34) 한지만, 이상해, 경기지역 민가의 배치형식과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9호 통권155호, 20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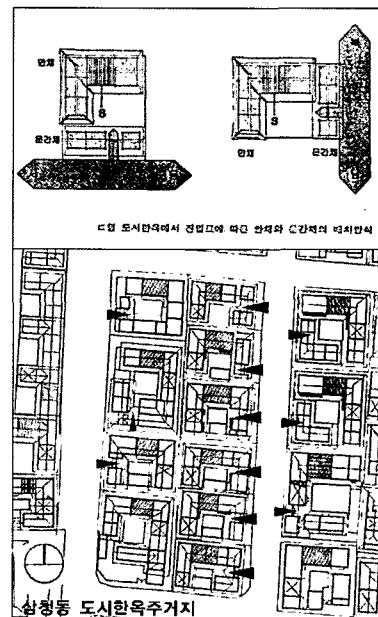


그림 13. 도시에 대응하는 도시한옥의 공간적 특성

35) 김효찬에 의하면, 조선시대 말기 인사동 (83.2%)과 장사동(77.5%)에 11평~100평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필지에서 그, 드, 모형의 도시한옥이 보인다. 반면 경기형 민가의 튼모자 평면은 기능적인 면에서 변화된 것이라기 보다 도시에 형성된 한옥의 형태와 구성을 근본으로 형성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사랑채를 포함한 바깥채가 통상 집 밖의 길 쪽으로 개방되어 외부공간과 주거공간 사이에서 완충적 구조를 가지는데 반해, 도시 한옥은 가로에 면하여 철저하게 폐쇄성을 가지는 것과도 비교된다. 이것은 조선후기 한양에 존재한 도시한옥에서부터 나타난 특성으로 민가의 공간구성과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는 것이다.

V. 결 론

도시한옥은 관습으로 형성된 한옥이 도시라는 새로운 조건에 맞게 변형된 주거유형으로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특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조선후기 한양에 자리한 도시한옥은 경기지역 중·상류주택의 공간적 원형인 ‘웃방객음’ 안채를 근본으로 하여, 행랑채를 포함한 바깥채들이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변화에 맞추면서 변화 된 것이다. 둘째, 1930년대 이후 근대적 생산방식으로

탄생한 도시한옥은 여러 면에서 독자적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그 원류는 이전에 존재했던 도시한옥의 구성 즉, 행랑채 + 사랑채 + 안채 의 구성이 점차적으로 도시 속에서 축소되고 변형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³⁸⁾ 즉, 근대적 도시한옥은 ㄷ자형 혹은 트로자형 경기형 민가의 공간구성을 참고로 하여 형성된 새로운 주거유형이 아닌 전통 도시한옥의 완결된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그림 14>.

셋째, 조선시대 이후 형성된 몇 가지 유형의 도시한옥들은 좁은 필지에 적응하는 채의 구성 등에서 완결된 도시한옥으로의 진화과정을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최근 가옥도본이나 가옥도형을 통해 조선시대 한양의 도시한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넷째, 도시한옥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경기형 민가의 연구는 분명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때 경기형 민가에 대해서는 유형학적인 연구와 함께 그 배경이 되는 인문학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ㅁ자형’ 혹은 ‘ㄷ자형’ 등 유사한 형태를 가진 도시한옥과 민가는 형태적인 면을 떠나 그들이 갖는 독자적 존재이유와 함께 고유한 구성적 특성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서연(2006), 경기감영도로 본 한국건축도법의 특징,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김홍식 · 이해성(1988), 19세기 양택론에 나타난 살림집의 간접이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6).
3. 김효찬(1995), 조선시대 후기 한양 도시주택에서의 필지조직과 건축유형,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성태원(2003), 서울 삼청동35번지 도시한옥주거지의 도시건축 유형학적 특징,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송인호(1990), 도시형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송인호(2004), 북촌 트로자형한옥의 유형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40.
7. 송인호(2005), 근대 경성의 한옥, 건축역사연구, 14(4).
8. 유영희(1994), 도시한옥 주거양식의 변화과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이영석 · 송인호(2001), 개화기 서울 한옥의 채의 구성에 나타난 도시적 특성,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2).
10. 전보림(2001), 한옥의 도시주거적 배치특성과 그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정인국(1991),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2. 정정남(2005), 가옥도형을 통해본 18세기 한성부에 위치한 사대부의 가대와 주택,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도시한옥 변화과정		전형적 평면구성	도시한옥 공간구성의 변화
제 1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로에 대응한 행랑채 2. 두 개의 마당을 향해 열린 안채와 사랑채 3. 남녀영역의 분리 확장
제 2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랑채 + 사랑채가 가로에 대응 2. 채와 마당의 간소화 경향 나타남 3. 안채의 영역 보호
제 3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랑채가 문간체로 간소화 2. 사랑채 + 문간채가 가로에 대응 3. 사랑마당의 가능 점차 소멸 4.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공간다각화
제 4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랑방 소멸 2. 사랑방 + 문간체가 가로에 대응 3. 채의 개념 사라짐 4.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공간다각화
제 5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랑방 사라짐 2. 웃방객음 안채 + 임자형 문간체 3. 도시한옥의 완결된 형태 4. 대지경계부와 주택형태 임치 5. 다세대주거로서의 성격 부가

그림 14. 도시한옥 공간구조의 변화과정

36) 이렇게 주거지의 구성체계에 의해 도시한옥의 배치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즉 대청이 남향을 취하는 방식이 최대한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입로를 필지내로 끌어들여 필지의 남측에서 출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 형성되는 진입로 또한 주거지 조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주택의 공간방식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

37) 조선시대에는 도시구조의 특성상 한옥들은 주로 남북방향의 가로에 면하거나 남북방향의 가로에서 분화된 진입로에 면하므로 바깥채는 주로 동서방향에 면하게 된다.

38) 양택론에 의하면 주택의 구성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사랑채, 혀간채 및 행랑채로 구성되며, 만일 이보다 규모가 작아지면 우선 행랑채가 생략되고 다음에 사랑채가 없어지는데, 사랑방은 혀간채에 덧붙여서 아래채로 만든다고 한다. 도시한옥에서 채가 간소화되는 특성을 보면 이에 의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조성기(1991), 한국 중부형 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3).
14. 조성기(1991), 한국 중부형 민가에 관한 연구(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6).
15. 조준범, 최찬환(2003), 필지분합을 통해 본 서울 북촌 도시 조직의 변화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2).
16. 주남철(1978), 조선시대 주택건축의 공간특성론, 대한건축학회지, 22(80).
17. 주남철(1965~1966), 한국주택의 변천과 빌달에 관한 연구 (I)~(III), 대한건축학회지, 19~21호.
18. 주남철(1969), 이조시대 주택의 공간성, 대한건축학회지, 13(34).
19. 주남철(1970), 이조 말부터 1945년도까지의 한국의 주택 변천, 대한건축학회지, 14(38).
20. 최일(1989), 조선시대 한옥 변천과정의 해석방법에 관한 소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1).
21. 한지만, 이상해(2001), 경기지역 민가의 배치형식과 외부공간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9).
22.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2004), 한국생활사박물관·조선생활관2, 사계절.
23. <http://digitalhanyang.culturecontent.com>,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接受: 2007. 5. 23)